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돋보기

수필 분야 우수상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글 김세한

※ 고양시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문제와 변화하는 시기에 맞춘 포용적 인권회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수필 분야 우수상에 선정된 작품을 수록합니다. 작품 내용은 <고양소식>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씨. 내 자리로 좀 와봐요”
10명도 안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A씨에게 부장님이 한 이야기는 모두에게 들렸다.
“A씨. 지난번 회식 때 교회 다닌다고 했었는데, 혹시 요즘도 교회 나가요?”
“네... 교회에서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어서요.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거, 코로나로 모두 예민할 때니 가급적...무슨 말인지 알 거라 생각해요.”



자리로 돌아오는 A씨의 얼굴은 빨개졌고 표정은 오묘했다. 불편함과 억울함이 섞여있었다 해야 하나. 포털사이트의 맨 앞에는 ‘○○교회 발 30명 집단감염’ 뉴스가 가득했다. 물론 A씨는 뉴스에 나온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었다. 식사하면서 수차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주일예배만 대면 예배로 드리고 다른

예배 및 모임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다고 했었다. 작은 사무실의 우리는 A씨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부장님의 저런 말들이 조금 지나치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A씨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내심 부장님 말에 동의했다. 혹시라도 A씨가 교회 발 집단감염에 걸려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했다.

다음 월요일, A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몸이 아파 병가를 냈다. 점심시간에 대화 내용은 A씨가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지

○○교회를 시작으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쏟아냈다. 죄책감은 없었다. 집단감염을 일으켰으니까. 우리는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점심을 다 먹고 돌아가는 길, 우리는 모두 같은 안전재난문자를 받았다.

[고양시청] 2021.06.25.(일) □□헬스장(일산동구 ○○로) 이용자는 인근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매일 헬스장에 가는 B씨가 있었다. B씨는 심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자기는 저 헬스장 안 다닌다고 이야기했다. 마스크도 끼고 운동한다고 열을 내며 이야기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뭐 괜찮다고 격정하지 말라고 했다. 포털사이트를 켜보니 이번엔 헬스장 집단감염으

로 뉴스가 도배되었다. 대놓고 피하지는 않았지만 B씨를 보면 조금은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부장님이 B씨를 불렀다. 잠깐의 대화가 오가고 B씨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B씨의 표정은 지난주 A씨가 지었던 그 표정이었다.

다음날 B씨를 보았을 때, B씨가 어제 헬스장에 갔었을까. 궁금했다.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집단감염 시설을 간 B씨가 불편했다. B씨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집단감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 실내체육시설에서 얼마든지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만약 헬스장에 갔더라면 고집스러운 B씨의 모습에 실망할 것 같았다. 우리는 화가 나 있었다.

“헬스장에서 집단감염 있었다던데, 저는 진짜 이 시국에 헬스장 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B씨가 없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놀랍게도 A씨였다. 이제 우리는 A씨와 B씨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다. 교회 다니는 A씨, 헬스장 다니는 B씨. 좋은 의미로 붙여진 건 아니었다. 나에게도 붙여졌을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우리에게 붙여진 수식어는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불안함과 불편함을 주는 의미였다.

코로나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고 뉴스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새로운 집단감염이 보도되었다. 원어민 강사, 노래연습장, 클럽, 음식점, 초등학교, 주점, 백화점 등 우리 생활 근처에 있는 수많은 직업군과 장소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문제는 저중에 몇 가지는 우리 중 누군가에게 해당되거나 아주 가까운 뉴스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 과장님
집단감염 날 백화점을 다녀온 이 대리님
퇴근 후 원어민 강사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박 주임님

코로나라는 같은 이유로 우리는 서로를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비난했다. 그 누구도 확진자는 없었다. 다만 우리는 서로가

잠재적 확진자라고 여겼고 언젠가 그들이 코로나를 몰고 와 내 삶, 가정, 회사를 파괴해 버릴 거라는 불안감을 품었다. 불안감을 품은 시선은 각자의 삶에 대한 존중을, 각자의 삶에 대한 감시와 원망으로 바꾸었다.

교회도, 헬스장도, 백화점도, 모든 곳에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모두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더이상 누구도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뉴스로서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감염에 뉴스는 수식어를 붙인다.

헬스장, 교회, 백화점,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코로나19,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광고 문구가 보인다. 또 외국 의 어느 광고에서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은 안 된다. 남을 차별하면, 너도 차별당한다.’

코로나19가 교회 때문일까. 실내체육시설 때문일까. 혹은 백화점에 방문하는 사람들 때문일까. 아니면 그 어느 집단, 직군, 직업 때문일까.

우리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다 막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혐오하는가. 왜 집단, 직군, 직업, 누군가를 혐오하는가.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질병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면 왜 우리 서로 미워하는가.

